[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탈석탄법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지난주 목요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난 9월 24일 3만 5천명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에 이어 달성된 탈석탄법 5만 청원이라는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반영이다. 기후정의행진 이후 탈석탄법에 대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중적 관심은 1만 5천여명에 불과했던 동의수를 단 4일만에 5만명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신규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와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5만명의 시민이 탈석탄법 제정에 동의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국회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탈석탄법 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는 포스코, 삼성물산과 같은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앞으로 기존에 있는 석탄발전소도 꺼나가야 하는 상황에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기후와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은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키고 화석연료 시스템을 더욱 연장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 이익이라는 논리에 갇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거리와 현장에서 발전소 건설 중단을 외쳐왔던 삼척 지역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목소리는 정책결정자들에게 가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지난 정부와, 작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회피해왔다. 다가올 5년간의 기후정책을 좌우할 새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이유였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비상한 행동이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구호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외쳐왔음을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는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에 착수해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올해 안으로 국회가 탈석탄법을

상정하고 통과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우선 이번 탈석탄법 5만 청원에 대한 각당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청원 5만 행동은 끝이 아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더 거대한 운동의 시작이다. 탈석탄법 제정, 당장 국회가 응답하라.

2022년 10월 6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악동대,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여성환경연대, 전남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하동군석탄화력주민대책협의회,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가톨릭기후행동, 60플러스기후행동, 초록교육연대, 에너지정의행동,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강원본부, 녹색당, 정의당 충청남도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오늘잇다, 한국ESD교육센터, 가재울녹색교회,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까리따스수녀회, 노틀담 수녀회,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살레시오수녀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성가소비녀회,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성모유치원, 성바오로딸수도회, 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 여주 피정의 집,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성심시녀회,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인보성체수도회, 전교가르멜수녀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 한우연대, 사단법인 동학소년회지구소년단, 예수고난회, 천주섭리수녀회JPIC, 원불교환경연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불교환경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